

최근 수정일 : 2024.12.3.(수)

■ [공통: 독서·문학]

01. ⑤ 02. ② 03. ② 04. ① 05. ⑤ 06. ② 07. ① 08. ④ 09. ① 10. ③
 11. ③ 12. ④ 13. ⑤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④ 19. ③ 20. ③
 21. ④ 22. ① 23. ② 24. ⑤ 25. ② 26. ⑤ 27. ② 28. ③ 29. ④ 30. ③
 31. ⑤ 32. ④ 33. ③ 34. ③

[1~3] 독서

[1~3] 독서 이론, ‘여러 글의 정보를 종합하여 읽기’

지문해설 : 이 글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글 읽기를 할 때, 한 편의 글에 원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글을 읽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독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찾아야 하는데,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믿을 만한 글인지를 평가하는 신뢰성 평가와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글인지를 평가하는 관련성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글들을 선정했다면,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인 선택하기, 추출한 정보들을 정교화하며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거나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전략인 연결하기, 글의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인 조직하기를 활용한다. 세 전략은 순서를 바꾸어 사용하거나 반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찾아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글 읽기를 할 때에 한 편의 글에 원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글을 읽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에서 얻지 못할 때는 그 글을 반복해서 읽기보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른 글을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읽을 글을 선정할 때에는 믿을 만한 글인지와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글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연결하기 전략을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에서 활용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읽기 상황에서 문제의 예시로 궁금증 해소, 글쓰기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과정에서 글의 정

보는 독자가 이해한 의미로 재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가 여러 전략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궁금증 해소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에서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을 때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하였고, 4문단을 통해 선택하기는 여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목적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신뢰성 평가는 글의 저자, 생산 기관, 출판 시기 등 출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그 글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읽을 글을 선정하기 위해 생산 기관인 출판사의 공신력을 따지는 것은 ⑦을 고려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글 내용이 수행 과제라는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⑤에 해당한다. ③ 글의 출판 시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그 글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은 ⑦에 해당한다. ④ 정보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글이 믿을 만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⑦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⑦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⑦은 저자 등 출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그 글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고, ⑤은 내용에 읽기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 내용에 목적에 맞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⑤에, 저자의 경력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⑦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3.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⑤에서 학생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동물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추출하였으므로,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⑤에서 학생은 <동물은 예술가>라는 글에서 ‘동물의 그림도 예술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추출하였으므로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③ ⑥에서 학생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에서 찾은 정보를 <동물은 예술가>에서 추출한 정보와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떠올렸으므로,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정교화하며 연결하여, 읽은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는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④ ⑦에서 학생은 세 글의 정보를 종합하여 인과 관계 구조라는 새로운 구조로 정리하였으므로 글의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⑤ ⑧에서 학생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에서 ‘동물 소유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라는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으므로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선택하기 전략을 다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4~7] 독서

[4~7] 사회,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적 경영’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두제적 경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든 주주가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공동체적 경영과 달리,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가 강한 결속력을 갖고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운영한다. 과두제적 경영하에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바탕으로 기업 전략 수립, 투자, 의사 결정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과두제적 경영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인 스톡옵션, 주식 평가 보상권과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공적 제도인 경영 공시 제도, 사외 이사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주제] 과두제적 경영의 장단점과 보완책**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이 글은 3문단에서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과두제적 경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기적인 기업 전략의 수립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첨단 핵심 기술 개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위기 대처 등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한 뒤, 5, 6문단에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스톡옵션, 주식 평가 보상권, 경영 공시 제도, 사외 이사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글은 특정 원리가 아닌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원리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는 부분도 제시하지 않았다. ③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두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④ 4문단에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할 때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이는 가설을 세우고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두제적 경영의 단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⑤ 4문단에서 과두제적 경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5, 6문단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이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여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에

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므로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과두제적 경영은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과두제적 경영은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과두제적 경영하에서는 소수의 경영진이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6.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미래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 경우 권리 행사를 통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은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인데,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 모두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 따르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 행사 여부는 경영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것보다 하락할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③ 6문단에서 경영 공시 제도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 공시는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또한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 할 수 있다. ⑤ 6문단에 따르면, 경영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사외 이사 제도를 통해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X사는 전체 주주가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X사는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을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하므로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고 있으므로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뀐 것은 아니다. ③ X사는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식이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A는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현행 방식을, 경영진을 변동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B는 예전처럼 주주들이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회사를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다. ⑤ 현재 X사의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A는 이러한 X사의 구조를 경영진이 변동되지 않고 경영 결정권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8~11] 독서

[8~11] 과학, ‘플라스틱의 문자 구조와 형성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의 문자 구조와 그 형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의 중합 과정을 예시로 들며 플라스틱의 거대한 문자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문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문자 중 일부가 결정 영역을 이룰 수 있으며, 플라스틱의 전체 문자 중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물성이 달라진다.

[주제] 중합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과 그 특징

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문자로 분해된다고 하였다. 이 불안정한 원자가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하고, 에틸렌의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전자를 가지게 되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며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이 과산화물 개시제를 통해 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산화물 개시제로 인해 에틸렌이 불안정한 원자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였으며, 이 말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플라스틱이라고 이른다고 한 것과 관련지어 볼 때,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이 불안정한 원자는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이때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전자를 갖게 되어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는 다른 에틸렌 분자가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같은 방식으로 단일 결합한다. 이와 같은 반응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생성되며, 여기에 다른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서 사슬 형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성장 중의 사슬은 그 한쪽 끝부분에만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서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하였다. 또한 4문단에서 공유되지 못한 전자를 갖게 되어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며 사슬이 이어지며, 이때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는 다른 에틸렌 분자가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단일 결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 따르면 공유되지 못한 전자를 갖게 되어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고, 이러한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이를 계기로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지면서 사슬 형태가 성장하게 된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연속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로,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만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공유되지 못한 전자를 갖게 되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며, 다른 에틸렌 분자가 가진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단일 결합한다. 단일 결합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쪽 탄소 원자가 공유되지 못한 전자를 갖게 되면서,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사슬이 성장하게 된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5문단에서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5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보기>의 ⑦는 사슬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되지 않은 상태를, ⑧는 사슬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 즉 결정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④로 이루어진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플라스틱은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다고 하였으므로,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결정 영역이 적어야 한다. 따라서 ④보다 ⑦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다. ② 5문단에서 플라스틱은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점점 불투명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④보다 ⑦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다. ④ 5문단에서 플라스틱은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⑦보다 ④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플라스틱은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⑦보다 ④로 이루어진 소재가 열에 잘 견딘다.

11.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①는 ‘가까이 대하다.’의 의미로, ③에 사용된 ‘접하다’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④, ⑤는 ‘이어서 닿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는 ‘소식이나 명령 따위를 듣거나 받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17] 독서

[12~17] 인문, (가)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에 대한 에이어의 견해 / (나) 도덕 문장의 논증에 대한 논리학자들의 관점

지문해설 : (가)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에이어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은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어야 하지만,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다고 보았다. 에이어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과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그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다. 한편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되므로,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주제]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에 대한 에이어의 견해

지문해설 : (나)는 도덕 문장의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에서 전개된 에이어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논리학에서 ‘P이면 Q다. P이다. 따라서 Q이다.’로 논증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한 논증으로 인정받지만, 전건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경우 두 P의 의미에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이 참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 에이어의 견해처럼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전건 긍정식에서 두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행크스는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적이며, 판단적 문장은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으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주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에 대한 행크스의 견해**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에이어는 감정을 표현하느냐, 사실을 기술하느냐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을 구분하였다. 사실의 종류에 따라 용법을 구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서 ‘도둑질은 나쁘다.’가 사실을 기술한 문장이라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에이어는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에이어는 분석적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는데, 분석적 문장은 술어가 주어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가)

의 3문단에서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에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기술적 용법에 따라 사실을 기술한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도덕 문장이 아니며, 도덕 문장은 표현적 용법에 따라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13.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라고 하였다.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조건문의 일부가 되든 판단적이다. 그러므로 조건문의 일부인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다. ② 도덕 문장을 포함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러므로 ‘표절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귤은 맛있다.’가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은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 즉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④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귤의 속성과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는 없다.

1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에서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경우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의 문제 제기였다. (가)의 3문단에서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하였으므로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따질 수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도덕 문장이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기본 가정을 한다. 그러므로 [진술 1]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진술 1]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진술 2]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행크스는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행크스는 [진술 2]에 동의할 것이다.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⑦은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는 경우 두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만약 에이어의 견해가 옳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논리학에서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⑦은 에이어의 윤리학적 견해에 대한 논리학의 비판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증에서 두 P가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만약 P가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낸다면 두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③ 전건 긍정식이 참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는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사용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전제가 일치해야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게 된다. ④ ‘귤은 맛있다.’처럼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 단독적으로 사용되면 선호를 나타내지만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선호를 표현하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도덕 문장과 마찬가지로 ⑦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⑤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라고 보는 행크스의 입장에 따르면,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사용된 문장은 그것이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내용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내용이 달라서 ⑦이 발생할 수 없다.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주관적 태도에는 참, 거짓이 없다. 즉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은 참, 거짓이 없다.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에이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주장 모두 주관적인 견해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상충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즉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은 전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결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보기>에서는 전제의 참, 거짓은 판단할 수 없어도 태도의 일관성

을 통해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견해는 상충한다. ③ 윤리적 옳고 그름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도덕 주체의 감정이나 태도와 분리된 무언가가 있다고 본다. 반면 <보기>에서는 도덕 문장이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견해는 상충한다. ④ ‘굴은 맛있다.’가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자선이 옳다.’가 회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그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두 입장은 상충하지 않는다.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보기>에서 ‘폭력은 나쁘다.’를 주관적 태도로 보는 입장 모두 그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두 입장은 상충하지 않는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시하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내놓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수색하다’는 ‘구석구석 뒤지어 찾다.’의 의미이다. ③ ‘전파하다’는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의 의미이다. ④ ‘발산하다’는 ‘감정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 해소되거나 분위기 따위가 한껏 드러나다.’의 의미이다. ⑤ ‘공개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다.’의 의미이다.

[18~21] 문학

[18-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이대봉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으며 작자와 창작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국문 군담소설이다.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남녀 주인공 이대봉과 장애황의 혼약과 이별, 시련 극복 후 재결합이라는 서사 구조 속에 그들의 영웅적 행적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국가적 차원의 이념적 가치와 개인적 차원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남장 모티프를 활용한 여성 주인공 장애황의 영웅적 활약상이 돋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장애황이 이대봉의 아버지인 이 사랑이 죽었다고 생각해 슬픔에 젖어 제문을 읽는 장면과, 장애황과 이대봉이 자신들이 겪은 시련의 자초지종과 더불어 간신 왕희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표문을 황제에게 바치는 장면이다.

[주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사랑을 이루는 남녀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

18.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이대봉은 ②에서 ‘팔 년을 의탁하’다가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

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중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⑩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대봉은 ⑦이 아닌 ‘농서’에서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었으며,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었다. ② ⑨은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함몰’한 곳이므로 흉노가 침범한 곳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대봉은 ‘금릉’에 이르러 ‘적군을 파하고’,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으므로 ⑩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③ ⑪은 장 한림 부부가 아니라, 이 시랑과 그의 아들 대봉이 ‘간신의 모해를 입어’ ‘유배 가’게 된 공간이다. ⑤ ⑫은 이대봉이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한 공간이므로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장 소저는 제문에서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장 소저는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이 이 시랑이 억울하게 유배 가게 된 것과 딸의 혼약이 어그러진 것으로 인한 걱정과 분노로 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 소저가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버린 것으로 여긴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장 소저는 제문에서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장 소저는 제문에서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장 소저는 제문에서 ‘간적 왕희가 첨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는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변복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장 소저는 상표에서 ‘작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해설 : ⑪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을 ‘소첩’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⑫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⑪와 ⑫ 모두 글

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제문으로 장 소저가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 앞에서 망자인 이 시랑에게 바치는 글이고, ⓑ는 표문으로 이대봉이 ‘황상 용탑 하에’, 즉 성상에게 바치는 글이다. ② ⓐ는 장 소저가 상대방인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고 억울하게 ‘수중고혼’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원통함을 ‘한 잔 술을 바치’면서 위로하기 위한 글이고, ⓑ는 이대봉이 상대방인 황상에게 자신과 부친이 ‘왕희의 모함을 입’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일과,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로서 무고한 사람에 대해 살해를 사주하였다는 사건의 경과를 알려 왕희에 대해 ‘엄형 국문하’는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④ ⓐ에서 장 소저는 대인 부자가 억울하게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제문을 바친 것이다. 하지만 ⓑ를 통해 이대봉 부자가 생존하여 있다는 사건의 실상이 드러남으로써, 장 소저의 생각이 오해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⑤ ⓐ의 서두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은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이고, 상대는 ‘이부 시랑 이 공’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의 서두에서도 글을 바치는 사람은 ‘죄신 이대봉’이고, 상대는 ‘황상’임을 밝히고 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여 판단할 때,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부친인 이 시랑과 재회한 사건은 가문의 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사적 목표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이대봉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공적 활약을 펼치는 데에 비현실계의 존재가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적 목표의 추구와 관련되고,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여 대공을 세우는 것은 공적 가치의 실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애황은 혼약을 이루고자 대공을 세우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적 목표의 추구가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②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공적 가치의 실현에 해당하고, 장애황이 왕희를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의 원통함을 풀기 위함이므로 사적 목표의 실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먼저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것은 공적 권위를 우선으로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대봉은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여 출전하였다. 이대봉은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성상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출전한 것이다. 이러한 인물의 모습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이대봉이 흉노를 제압하는 공을 세운 것은 공적 가치인 충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

되고, 왕희를 처벌하는 것은 사적 목표의 실현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대봉이 흉노를 제압한 공을 드러내면서 황제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것에는 총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적 목표인 왕희를 처벌하는 일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2~26] 문학

[22-26] 갈래복합 - (가) 작자 미상, '우부가' / (나) 성현, '타농설'

지문해설 : (가)는 「초당문답가」라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 시대 후기의 가사로, 조선 후기 양반 사회가 당면했던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 몰락, 그리고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봉건적 가치관의 붕괴 양상을 풍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인 '개똥이'와 '꽁생원', '꽁생원'은 무위도식하거나 분별없이 행동하고, 체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이러한 인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열함으로써 조선 시대 후기 양반층의 타락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타락한 양반에 대한 비판과 경계

(나)는 조선 전기의 문인 성현이 지은 고전 수필로, 전반부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큰 가뭄이 들었지만 부지런한 농부는 계속 노력하여 결국 수확을 거두었고, 게으른 농부는 결과를 예단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굶주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선비들이 학문에 정진해야 할 자세를 권면하고 있다. 많은 선비들이 젊었을 때 학문에 뜻을 두고 공부하다가 몇 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하면 포기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문의 수고로움이 농사의 고생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은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비들에게 학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깨우침을 주고 있다.

[주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

2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꽁생원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나열하는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타락한 양반에 대한 비판과 경계라는 주제를, (나)는 큰 가뭄이 들었을 때의 부지런한 농부와 가난한 농부의 말과 행동을 대조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와 같은 부분에서 대구적 표현을 찾을 수는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

니다. ③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는 ‘봄’, ‘여름’, ‘가을걷이’ 등 계절과 관련된 단어가 나타나지만,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가)는 인물의 부정적 행동을 나열하며 해학성을 유발하는 속성이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는 해학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훑어 놓고’,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를 통해 꽁생원이 가족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꽁생원이 재물을 모았다가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를 통해 ㉠은 집터나 땃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꽁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뜬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와 연결하면 ‘청질’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꽁생원이 권력가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이므로, ㉢은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④ ‘가대 흥정 구문 먹기 편잔 들고 자빠지고’는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꽁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편잔을 들은 상황을 제시한 것이므로, ㉣은 꽁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⑤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로, ‘부자나 후려 볼까 감언이설 꾀어 보자’를 참고할 때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꽁생원이 부자를 꾀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4. 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해설 : (나)의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를 통해 ㉥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통해 ㉦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를 통해 ㉑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잘 가꾸어져 빽빽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를 통해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대상은 ㉒가 아니라 부지런한 농부임을 알 수 있다. ㉓

(가)의 ‘제 아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다니’를 통해 ②는 부모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③가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떨어져 낙심했기 때문이지,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③ (가)의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 당해 뺨 맞으며’를 통해 ②가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 ②가 과거 시험에 뜻을 이루지 못해 수치를 당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의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밥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려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를 통해 ⑤는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들을 비웃고 아녀자들을 조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의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를 통해 ⑥는 과거 시험의 실패라는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5. 내용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고전 수필인 설(說)로,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경험,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바람직한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다. (나)에 글쓴이의 주장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는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말을 인용하여,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태도와 손을 놓고 게으르게 지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글쓴이가 파산의 들판 풍경을 보고 던진 질문에 대한 마을 노인의 대답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파산의 들판에서 관찰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④ (나)의 마지막 문장인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한 것에 해당한다. ⑤ (나)는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에 임하는 농부들의 대조적인 태도와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글쓴이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학문에 임하는 선비들의 자세로 확장하고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꼬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글쓴이가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대상은 게으른 농부가 아닌, 포기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기 바라는 선비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공것’은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물건을, ‘뜬재물’은 뜻하지 않은 기회에 우연히 얻은 재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것’과 ‘뜬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여행을 바라는 꽁생원의 태도와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은 큰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짓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공납’은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조세를 내는 일’을 의미한다. 이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규범과 관련이 있다. ‘공납 범용’은 국고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근본적인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게으른 농부는 어차피 농작물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지으며,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은 노력해도 불행한 결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론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의 ‘제 아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를 통해 꽁생원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넉넉한 상황이었지만 친구들에게도 인색하게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는 부지런한 농부가 큰 가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30] 문학

[27~30] 현대 소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984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 전후에 우리 민족에게 생긴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야영 훈련 중인 부대가 야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유골을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와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관련한 ‘나’의 기억과 생각을 겹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또한 유골 수습을 계기로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에서 점차 벗어나 이해와 연민에 이르게 되는 ‘나’의 심리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민족사의 앙금으로 남아 여전히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전쟁의 상흔을 해소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지문의 전반부에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의 죄’를 듣게 된 ‘나’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심리적 갈등을 겪는 모습이, 후반부에는 참호를 파던 과정에서 발견한 유골을 수습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에서 벗어나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주제]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이해와 연민을 통한 상처의 치유

2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라는 표지를 통해 서술의 주체가 ‘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과 ‘온통 잿빛의 풍경’인 사위를 지각하는 주체가 ‘나’라는 점에서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별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술의 주체인 ‘나’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건(그것은)’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나’가 본 ‘사내의 환영’과 ‘나’가 언젠가 액자 속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는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로, 인용 부호 없이 어머니의 말이 전달되고 있다. ⑤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 왔다.’의 주체는 서술자인 ‘나’일 수도, 총에 맞아 의식을 잃어 가는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사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각의 주체가 모호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28.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어머니가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내용의 말인 ④를 들은 ‘나’는 그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④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참호를 파던 과정에서 발견한 유골을 수습한 후 ‘작은 술판’을 벌이는 부대원들이 ‘좋은 일’을 했다고 낄낄대면서 주고받는 말이 ⑤이므로, 이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유골을 수습하게 된 ‘나’가 이해와 연민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환기되면서 주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어머니의 말인 ④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고까지 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다. 한편 ⑤는 유골 수습 후 ‘음복인 셈’인 술잔을 기울이는 군인들이 ‘낄낄대며’ 보태는 말이므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주제 가늠의 단서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② ④는 ‘나’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일 뿐,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유골 수습 후 ‘작은 술판’을 벌이는 병사들이 주고받는 말인 ⑤로 인해 이야-

기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⑥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①로 인해 ‘나’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⑤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⑥는 유골 수습이 끝났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① 때문에 ‘나’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⑤는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⑥로 인해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29.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철삿줄에 묶인 채 매장된 유골을 수습한 ‘나’가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⑦는 한국 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후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어느 벼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⑧는 아버지가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매장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⑨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⑦에 투영된 어머니의 염원, 즉 아버지의 귀환이라는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⑦는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동물이고, ⑨는 땅에 묻힌 아버지가 ‘피워 내’는 식물이므로, ⑦가 ⑨에 비해 ‘능동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⑦는 어머니의 말에 등장하는 대상이고, ⑨는 ‘나’가 상상한 아버지의 상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둘 다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⑨는 아버지가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매장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성격과는 관련이 없고,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⑦가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⑤ ⑦는 한국 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선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과 ⑨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빚어진 전쟁의 와중에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⑦와 ⑨ 모두 이데올로기와 연관이 있기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⑦와 ⑨로 인해 아버지가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나’는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줄 끊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는 죽어서도 유골을 얹매고 있는 철삿줄을 풀어 주고자 하는 노인의 행위일 뿐,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노력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어머니가 ‘물 사발’을 올리는 것은 아버지의 무사함과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노력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오답파하기] ①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후부터 ‘아버지의 죄’를 자신도 나누어 지니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에서, ‘나’의 심리적 불안정은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모래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우러지는 장면은 현기증을 느낀 ‘나’가 본 환영으로, 여기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간직한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나’의 어머니와 학생복 차림의 아버지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기억이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철삿줄에 묶인 채 매장된 유골을 수습한 후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을 아버지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점차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의 변화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기억이 재구성됨으로써 ‘나’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1-34] 문학

[31-34] 현대시 - (가) 이기철, ‘청산행’ / (나)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지문해설 : (가)는 속세와 결별하고 ‘청산’에서의 삶을 선택한 화자가 점차 청산에 동화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시상의 전개 과정에서 대비되는 성격의 소재와 공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속세 대신 자연을 선택한 화자가 곧바로 그곳에서의 삶에 온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속세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화자는 결국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소망

(나)는 훌로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존재의 인식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훌로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사실’이라고 말한다. 또 차를 마시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관습’이라고도 한다. ‘사실’은 실제로 발생했거나 현재 있는 일로 객관적 실체이며, ‘관습’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 굳어진 행동 양식이나 습관으로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다. 화자는 차를 즐기는 행위가 사실과 경험이며, 나아가 ‘내게 대한 모든 것’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사실과 경험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의 존재를 인식할 때 사실적 경험을 준거로 삼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더 이상 추상적 존재인 ‘절대자’와의 관계로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작품은 특히 ‘뿐’을 반복하여 자신이 선택한 인식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사실과 관습으로 모든 존재를 인식하려는 태도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함께 눕고 싶은 ‘돌들’은 청산에 동화되어 살고 싶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로 볼 수 있고, ‘돌들’과 함께 눕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에 ‘물’이라는 자연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나’처럼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 중 하나일 뿐 화자가 친밀감을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는 ‘돌들’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으로, 자연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나)에 쓰인 부사 ‘다만’과 의존 명사 ‘뿐’은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로, 이를 통해 존재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산길’을 가면서 발견한 ‘인가’, ‘서쪽 마을’, ‘저녁 연기’를 보며 속세에서의 삶을 떠올리고, ‘돌들’을 보면서 자연에 동화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처럼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속세와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는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는 ‘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작품 표면에 화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3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가)에서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에서 ‘서른 번 다져 두’었던 것은 속세를 떠나 청산에 살겠다는 생각을 의미하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은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청산에 살겠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길을 걸으면서도 화자가 ④를 떠올린 것은 청산에 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적 갈등하는 화자의 상태를 내포한다. (나)에서 화자가 말하는 ‘관습’은 즐겁게 차를 즐기는 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이 행위는 고요하고 아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객관적 실재로 여러 번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⑥의 ‘관습’은 차를 마시는 행위가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운 행위로서 내면에 평정을 이루게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④는 길을 가다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속세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관습’ 자체를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며 그리워하는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② ⑤는 ‘호을로’ 하는 것으로 화자가 달가워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이다. 화자는 이런 행위를 통해 자아와 세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깨닫는다. 따라서 ⑥를 화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④가 ‘서쪽 마을’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서쪽 마을’은 속세를 의미할 뿐 관념적으로 생각해 낸 현실 밖의 세계를 의미하는 ‘피안’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⑥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저녁에 차를 마시는 행위가 즐겁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안식에 대한 화자의 지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④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미련과 관련되므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인 자기 연민과는 관련이 없다. ⑥는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행위로, 화자는 이 행위를 ‘달갑고’ 즐거운 일로 여길 뿐, 이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⑦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물의 상태를 나타낸 것일 뿐 ‘돌들’이 거친 세상살이로 인한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⑦은 청산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는 지금과는 달리 청산에 들어온 직후에는 아직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⑧은 ‘한 가정’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⑨은 차를 마시는 행위가 ‘누구’에 의해 행해진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나타낸 것이다. ⑤ ⑩은 화자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화자가 앞으로도 이러한 인식 방식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발을 푸니’는 화자가 청산에 들어와 살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잘 보인다’라는 것은 청산에 들어온 화자가 서서히 자연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한편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화자가 이제부터는 현실을 인식할 때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현실에 얹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에서 ‘편지 구절’과 ‘칫솔’은 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 화자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차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과 관습, 즉 경험적 사실을 통해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으로 인식을 확장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자아와 세계의 존재를 인식할 때 오로지 사실과 관습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존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④ (가)의 ‘허우적거리는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속세에 대해 미련을 지닌 채로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의 시킴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누구’를 절대자로 본다면 이는 세상의 존재를 인식할 때 절대자와의 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 경험 등에 의존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즉 이 구절은 화자가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은 속세와 단절된 순수한 자연물로, 이들과 잠들고 싶다는 것은 자연에 동화되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물은 물일 뿐’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 자체로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⑤ 37. ① 38. ① 39. ③ 40. ② 41. ② 42. ④ 43. ② 44. ⑤ 45. ⑤

[35~39] 언어

[35~36] 지칭어와 호칭어의 쓰임

지문해설 : 이 글은 지칭어와 호칭어의 특성과 사적·공적 관계나 격식적·비격식적 상황 등의 요인에 따른 사용 양상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지칭어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를 때 사용되는 말로, 그 대상을 부르는 말을 호칭어라고 한다.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에 호칭어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맥락 요인에 따라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칭어나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지칭어 중에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다시 미지칭과 부정칭으로 나뉜다. 대명사, 명사, 관형사, 부사 등이 미지칭과 부정칭을 나타내는 데에 쓰일 수 있다.

[주제] 지칭어와 호칭어의 특성 및 상황 맥락에 따른 쓰임

35. 품사의 특성

정답해설 : ④의 ‘얼마’는 대상을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명사이다. ⑤의 ‘무슨’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관형사이다. ①의 ‘언제’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부사이다. ③의 ‘어떤’은 맥락에 따라 대상을 알지 못하거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관형사이다. 따라서 ④, ⑤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

정답 ④

36. 호칭어와 지칭어

정답해설 : ‘여보세요.’는 가족 사이에, 특히 아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법한 표현은 아니다. ④에서는 아들의 생각에 주의를 주는 정도의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를 쓰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⑦는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 호칭어이고, ⑧는 ‘아빠’가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이다. ⑨와 ⑩는 화자와의 관계에 따라 같은 대상에 대한 호칭어가 달라지는 사례이다. ② ⑪은 사적 관계에 있고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대상을 이름이나 친족어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⑪와 ⑫에서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는 각각 조카와 이모, 형부와 처제로 다르지만 동일한 친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⑬는 ⑭에 접미사 ‘-님’이 결합된 복합적 형식이라는 점에서 ⑪와 ⑫를 같은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 ③ 제시된 상황은 가족 간의 대화 장면이므로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⑯은 공적 관계에 있고 격식적인 대화 상황에서 공적인 직위나 지위 등을 사용하여 대상을 이르거나 부를 수 있음을 보이는 사례인데, 제시된 상황은 가족 간의 대화 장면이므로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⑮는 호칭어가 아니라 지칭어이다.

37. 서술어의 자릿수

정답해설 : ‘계시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도착하다’ 역시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의 뜻을 지니는 ‘그치다’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아가다.’의 뜻을 지니는 ‘내리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무엇이 되게 하다.’의 뜻을 지니는 ‘만들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의 뜻을 지니는 ‘새우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④ ‘어떤 재료나 성분으로 이루어지다.’의 뜻을 지니는 ‘되다’는 주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 ‘아니다’는 주어,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⑤ ‘일정한 한도를 넘어 정도가 심하다.’의 뜻을 지니는 ‘지나치다’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어떤 곳을 머무르거나 들르지 않고 지나가거나 지나오다.’의 뜻을 지니는 ‘지나치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38.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⑦의 ‘실없네[시럼네]’는 ‘없 → 업’의 자음군 단순화(⑧)가 일어나 ‘ㅂ → ㅁ’의 비음화(⑨)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⑪의 ‘깊숙이[깁쑤기]’는 ‘깊 → 깁’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⑫)이 일어나 ‘ㅅ → 쟁’의 된소리되기(⑬)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③ ⑭의 ‘짓밟지[진 뺍찌]’는 ‘짓 → 짓’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⑫)이 일어나 ‘ㅂ → ㅃ’의 된소리되기(⑬)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④ ⑯의 ‘꺾는[껑는]’은 ‘꺾 → 꿩’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①)이 일어나 ‘ㄱ → ㅇ’의 비음화(②)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⑤ ⑨의 ‘훑고[훑꼬]’는 ‘훑 → 훌’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①)이 일어나 ‘ㄱ → ㅋ’의 된소리되기(⑥)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39.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 표기

정답해설 : ‘많다’의 ‘-다’를 ‘多’로 표기하고 ‘다’로 읽는 방식은 한자의 본뜻을 무시하고 음으로 읽은 경우이기 때문에 ⑦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불[火]’을 ‘火’로 표기하고 ‘불’로 읽는 방식은 한자의 본뜻을 유지하고 훈으로 읽은 경우이기 때문에 ⑦에 해당한다. ② ‘흙[土]’을 ‘土’로 표기하고 ‘흙’으로 읽는 방식은 한자의 본뜻을 유지하고 훈으로 읽은 경우이기 때문에 ⑦에 해당한다. ④ ‘시옷’의 ‘옷’을 ‘衣’로 표기하고 ‘옷’으로 읽는 방식은 한자의 본뜻을 무시하고 훈으로 읽은 경우이기 때문에 ⑦에 해당한다. ⑤ ‘찬물을’의 ‘을’을 ‘乙’로 표기하고 ‘을’로 읽는 방식은 한자의 본뜻을 무시하고 음으로 읽은 경우이기 때문에 ⑦에 해당한다.

[40~45] 매체

40.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정답해설 : ⑦은 독도 바다사자의 이미지와 자막을, ⑧은 지도 이미지와 자막을 함께 사용하여 복합 양식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⑦은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⑦은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⑨은 인터뷰 대상이 △△해양연구소의 이○○ 연구원이라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⑨은 인터뷰 대상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⑦, ⑧, ⑨ 모두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미세 먼지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보도의 주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⑦, ⑧, ⑨ 모두 화면의 하단에 자막이 배치되어 있으나, 자막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행복이’는 뉴스에서 ‘지역 어민 대표’가 독도 바다사자 복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 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랑이’는 뉴스에서 ‘전문가’가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들여오는 방식의 복원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주목하여 이러한 방식이 우리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강치맘’은 뉴스에서 ‘관계자’가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 독도가 바다사자 복원에 유리하다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하여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을 근거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④ ‘보리보리’는 뉴스에서 ‘기자’가 독도 바다사자가 일제 강점기 남획으로 사라졌다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하여 남획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⑤ ‘독도사랑’은 뉴스에서 ‘진행자’가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이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하여 인근 주민으로서 해당 내용이 확실한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이 유리한 이유로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음.’과 ‘독도 지역은 서식 환경이 적합함.’을 연결 어미 ‘-고’를 통해 나열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독도 바다사자는’에 쓰인 ‘는’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의 ‘만’은 ‘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급격히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에 쓰인 ‘-다가’는 어떤 일의 과정이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나 근거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⑤ 피동사 ‘전망되다’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주체는 ‘전망’의 주체이지 ‘복원’의 주체가 아니다.

43.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포스터에서 상위와 하위 항목의 글자 크기와 굵기를 서로 달리하여 행사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행사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글자 간에는 크기와 굵기의 차이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포스터의 오른쪽 하단에 독도 바다사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QR 코드를 제시하여 수용자가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독도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독도 바다사자 복원!!’이라는 제목을 글 상자에 넣어 포스터의 상단 중앙에 제시함으로써 캠페인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④ 학생 이미지 옆의 말풍선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우리 함께합시다.’와 같이 청유형으로 마무리하여 독도 옛 모습 찾기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⑤ 포스터에 독도를 배경으로 헤엄치는 독도 바다사자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수용자가 독도와 독도 바다사자와 함께하는 독도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4.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서형’은 ‘영상 공유’ 기능을 통해서 ‘슬라이드 자동 넘김’이 구현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해당 기능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회의 참여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해당 기능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선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영’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수민’을 위해 회의를 녹화해서 파일로 저장하겠다며 회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어지는 채팅 기능을 통해 ‘나영’이 회의 녹화를 실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지현’은 채팅 기능을 통해 학생회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판의 주소를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있다. ③ ‘민진’은 게시판에 제출된 많은 의견 중 앱에 반영할 의견을 고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회의실’ 개설을 제안하고 있다. ④ ‘은준’은 회의의 진행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수민’에 대한 안부를 묻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통해 ‘나영’과 대화하고 있다.

45.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회의에서 ‘은준’이 발화한 내용에 따르면, ‘쪽지 보내기’를 통해 발신자가 쪽지를 보내면 수신자의 휴대 전화에 알림이 간다. 따라서 ④를 활용하여 쪽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신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회의에서 ‘서형’이 발화한 내용에 따르면 ④는 앱에서 학교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메뉴임을 알 수 있다. ② 회의에서 ‘은준’이 발화한 내용에 따르면 ⑥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메뉴에 해당한다. 또한 회의에서 ‘윤하’가 발화한 내용에 따르면 ‘친구 찾기’를 통해 친구를 검색하면 친구가 입력해 놓은 친구 계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가 ⑤에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 ‘친구 찾기’를 통해 해당 주소의 친구 계정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③ 회의에서 ‘지현’이 발화한 내용에 따르면 ‘나의 서재’는 간직하고 싶은 글을 저장할 수 있는 메뉴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중에 썼던 글을 ⑦에 올려 두고 보고 싶을 때 다시 열어 보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④ ‘민진’은 회의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진을 볼 수 있는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을 ‘행사 사진’ 메뉴에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④를 이용하면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을 통해 시간 순서에 따라 행사 사진들을 다시 보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